

노동정책연구
2013. 제13권 제3호 pp.29-5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박태정*

본 연구는 생애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난 일과 은퇴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풀어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일과 은퇴를 둘러싼 경험의 주제 영역은 ‘일에 대한 경험’,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자기인식’,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타났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 일에 대한 경험은 ‘사회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직장인으로 버티었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호구지책 수단이 아닌 보람 있는 나의 일을 찾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인식을 살펴보면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긴 세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내 삶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결과는 세대 간 노동(일) 가치관 비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와 특징에 대한 후속연구의 고려이다.

핵심용어: 베이비부머, 은퇴, 노후의 삶의 질, 생애사 연구

논문접수일: 2013년 5월 20일, 심사의뢰일: 2013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22일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jfkj01@hanmail.net)

I. 들어가며

베이비부머 세대란, 우리나라에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2010년 기준 약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중·장년기까지 이르는 동안 경험했던 생애주기와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외형적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가령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을 전후로 전개되었던 대대적인 국가재건정책은 후일 이들 세대가 ‘선성장-후복지’ 명제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또한 1970년대 공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부모 세대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초 학력 수준이 향상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들 세대가 본격적인 경제주체로 등장한 1980년대는 산업화와 고도성장 그리고 민주화 운동 등의 중요한 사회변화가 나타난 시기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 과정을 함께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국내 각종 사회·경제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로 발생한 빈곤과 실업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배제와 이탈은 그들과 관련된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쟁점(정경희 외, 2010)을 급부상시켰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라는 외피 요인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과 사회로부터 타율적으로 단절되거나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역할 부재 현상 등 여러 쟁점이 파생되고 있지만, 아직 이들과 관련된 지원 제도와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소득단절, 노후보장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상당수 진척되고 있다. 다만 그들의 일과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는 패널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을 위주로 노후 자산 축적 수준과 관련된 접근이

주류를 이룰 뿐, 일반적인 개념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주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한국전쟁 이후 ‘개발 시기’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이 경험한 일, 그리고 은퇴의 의미는 다른 세대와 그것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성질과 욕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출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당사자들의 생애를 통해 드러난 일과 은퇴의 경험적인 의미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베이비부머 세대의 개념 및 국가별 비교

베이비부머 세대는 미국·일본·한국 등 주요 국가에 걸쳐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일컫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출생률의 급격한 증가는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나는데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첫 번째 증가(1차 베이비붐)이고 두 번째 증가(2차 베이비붐)는 1968년에서 1974년까지이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국내 학계에서는 대체로 1차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인구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당시 출생인구는 매년 평균 70만 명 이상 웃돌 만큼 높았으며, 이 기간 내 출생인구의 총합은 7백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한편 전술한 것과 같이 베이비붐은 우리나라만의 인구학적 특징은 아니다. 주요 국가별 베이비부머 세대 특징을 비교해 보면, 먼저 미국과 영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세계대전 이후 인구 팽창기(1945~1963년)에 태어난 집단을 이룬

다. 이들은 전후 재건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전쟁 시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는 총 7,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영국은 1,4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이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전쟁과 인권운동 등을 경험하면서 소위 ‘사회운동’의 주류로 등장한 바 있고, 영국 역시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 불황 그리고 대처리즘 체제의 문제점을 직접 겪는 과정에서 순응과 저항의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1960년대 케인즈 노믹스 체제에서의 경제성장기와 1970년대 경제 불황 그리고 냉전에 따른 이데올로기 갈등에 따른 국가 간 갈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송양민, 2010: 32).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년간에 걸쳐 출생한 집단을 지칭하는데 단카이(團塊) 세대라고도 한다. 비록 3년이라는 단기간이지만, 일본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이른바 ‘회사형 인간’이라고 불리면서 일본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구축하고 소비문화를 꽃피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후반부터 이들의 거취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방하남 외, 2010).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요 국가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국가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비교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명칭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단카이 세대
출생 연도	1955~1963	1946~1964	1945~1963	1946~1948
주된 경험 (역사적 이슈)	4·19혁명 5·16군사정변 유신체제 민주화운동	베트남 전쟁 흑인 등 소수자 인권운동	비틀즈 코드 출산을 저하 1970년대 오일쇼크	패전 (태평양전쟁) 반정부 시위
인구 분포	약 712만 명 (인구 14.6%)	7,700만 명 (인구 30%)	1,490만 명 (인구 24%)	680만 명 (인구 5%)
관련 개념어	한강의 기적 산업화, 민주화	사회운동과 혁명 (자유와 정의)		회사형 인간

2.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시작은 다른 국가에 비해 약 10년 정도 늦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만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는 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체로 1960년대 대가족 내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1970년대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세대이다. 그러므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보수와 진보, 혹은 전통과 혁신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진 것으로도 보인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깁 세대’ 혹은 ‘샌드위치(sandwich)’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방하남 외, 2010).

일과 자기계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범국가적인 경제개발 과정을 경험하면서 소득 증대 및 사회기반 확충에 따른 성장기회와 안정감을 누렸던 것과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의 각종 어려움까지 함께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일에 대한 욕구가 대체로 높은 편에 속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10). 다만 일과 자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성장해 왔던 세대인 만큼, 평생학습 등과 같은 직접적인 자기계발 활동의 참여율은 전체 성인 학습자의 참여율(28%)에 비해 낮은 23.7% 수준이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09).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2010년을 기준으로 평균 50세 전후의 연령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된 거주 지역이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10). 또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기퇴직 현상으로 인해 퇴직연령이 평균 53세로 형성됨에 따라 현재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개인의 안녕과 삶의 질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거시적 측면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따른 재정 약화 등의 문제 현상의 원인이 될 것으로 지목된다(전찬호·진성미, 2011: 22).

가족관계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먼저 핵가족이 보편화된 것이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 시기 당시 대가족 내지 확대가족 유형이 대부분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단기간 내 가족구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뿐

〈표 2〉 베이비부머의 가족 형태

	무자녀 (%)	자녀 수 (명)	자녀 동거율 (%)	손자녀 비율 (%)	형제·자매 수(명)	
					본인	배우자
비율	5.1	1.9	82.7	11.8	5.1	5.0

자료: 정경희 외(2011) 참고 재구성.

만 아니라 2000년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베이비부머 당사자의 원 가족에 비해 생식가족의 규모가 더 작은 현상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표 2>에서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는 평균 1.9명인 데 비해 베이비부머 본인의 형제·자매 수는 5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점차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 등에 따른 노후생활을 보내는 주요한 계획으로서 취미생활과 자원봉사, 일정 규모의 소득창출 활동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2). 이는 무보수 가사노동과 손·자녀 양육 등으로 특징지어졌던 그들 부모 세대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원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본인들의 기존 노동자 지위를 상실하는 물리적 기산점인 퇴직을, 곧 자신들의 은퇴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판단된다.

3. 주요 선행연구 동향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된 연구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선행연구들의 개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을 비롯하여 노후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및 경제적 상황, 소비실태, 은퇴준비 등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노동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에 따른 노후생활 설계, 주요 욕구 등의 이슈를 다루기도 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선행연구 동향

연구자	방법	연구 주제 및 주요 내용					
		노후 보장준비	가족관계	생활실태	경제활동, 소비수준	삶의 만족도 및 안녕	근로의사
김지훈·강욱모 (2013)	양적 (패널)					●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갈등 대처방식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심리적 변인인 우울과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족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					
강상경 (2012)	양적 (패널)			●		●	
		삶의 만족도 및 관련 변수들에 대한 세대 간 비교를 통해 연령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U-형태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대적 행복도가 가장 낮음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					
강은나 외 (2012)	양적 (2차)				●		●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별, 주관적 건강, 가구원 수, 가구소득, 자녀로의 경제적 이진, 현재 경제활동 여부, 최장기간 종사상 지위, 건강보험의 충분성 인식 등을 제시하고 이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방향을 제언					
강정희·설연옥 (2012)	질적		●			●	
		중년 독신 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성공적 노년생활 준비 태도에 대한 질(탐색)적 연구					
김준영 (2011)	이론	●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용 및 한국적 함의 제시					
정경희 외 (2010)	양적 (2차)	●				●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상태, 노후준비, 여가 등에 대한 2차 자료분석 및 관련 정책 제언					
석재은·이기주 (2010)	양적 (패널)	●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제활동 상황, 소득층위 및 성별에 따른 다층노후보장 준비 수준의 차이 파악 및 관련 정책 제언					
나일주·임찬영·박소화 (2008)	이론	●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주요 문제를 개인,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제언					

이 밖에 경영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적 관점에서 중년 베이비부머 여성의 삶의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시간, 관계, 젊음과 건강, 자아실현, 의식’으로 제시한

연구(이지현·김선우, 2012)가 있으며, 남성 사무직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력 개발 관련 동기요인에 주목하여,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연구(전찬호·진성미, 2011) 등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외의 경우,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근로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퇴직이 일어나는 시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그 주된 요인들을 개인적 특성, 일자리 관련 요인, 건강, 재정적 인센티브로 구분·제시하였다(Meadows, 2003). 그 외 노동시장에서 분리되는 요인으로서 부양자녀를 가졌거나 미혼인 여성은 조기은퇴율이 높으며, 일보다는 여가에 삶의 가치를 더 부여하는 사람들 역시 일찍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분석되고 있다(Tillesley et al., 2001). 다만 이와 달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개인의 역량여부 혹은 자유 의지에 의한 은퇴보다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강제적인 퇴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리나라 상황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이비부머 집단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집단인 만큼, 사회서비스 이용자 내지 복지정책의 수급자로서만이 아니라, 이들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연결된 산업 분야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Coleman et al., 2006)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정형화된 일곱 가지의 왜곡된 기존 소비 관념과 실제 양상을 비교분석한 논의(Coughlin & D'ambrosio, 2009) 역시 다뤄진 바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종합해 보면, 국내 베이비부머 관련 연구 동향은 거의 대부분 정량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은퇴 준비 태도 내지 이들의 사회심리적 특성 및 노후생활 보장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빈곤계층, 중증장애인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회적 약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그 실태와 현황을 다룬 연구가 다수 진행된 것이다. 그에 비해 국외 연구의 경우 소비자 분야에서 노동경제 영역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

대들의 인구사회학적 현황과 사회경제적 실태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던 만큼,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특성과 욕구 그리고 가치 등을 주목하는 연구들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당사자의 삶의 경험과 목소리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자기인식과 경험에서 비롯됨으로써 기존 관념과 차별화될 수 있는,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험을 통해 인식된 일과 은퇴의 고유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둘러싼 연구방법론 및 연구 주제가 좀 더 다양해져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참여자

본 연구는 생애사적 관점에 기반한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각한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를 탐구하는 목적을 가진 바, 연구방법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심층면담은 정량적 연구방법이 미처 설명해 내기 어려운 연구대상(당사자)의 현실세계를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경험으로부터 발견되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 내지 이론적 틀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드러냄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곽영순, 2009: 41). 또한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층면담은 해당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고자 할 때도 이를 가능하게 한다(김영천, 2011: 324). 아울러 생애사적 관점에서 진행되는 심층면담은 한 사람의 과거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참여자는 연구자에게 개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능한 한 완벽하고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관점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볼 때 본 논문이 채택한 생애사적 관점에서의 심층면담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경험하거나 참여관찰 하기 어려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해 왔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일과 은퇴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이태진 외, 2007: 17). 즉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만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연구대상의 규모를 크게 하고 그 특징을 평균화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양적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자들의 수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것의 깊이와 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현상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이를 충실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the right person)을 선정하여야 하는 점(Mayan, 2009: 49)에 주력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연구대상으로서의 접근성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할지라도,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 가족에서부터 자신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이야기와 경험을 두텁게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특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여러 가지 표본추출 전략 가운데 의도적인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직업으로서의 일을 갖거나 경험한 자를 주된 기준 대상으로 하여, 두터운 진술을 할 수 있는 참여자를 유의 표집하였다. 첫 연구 참여자로서 성인 평생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A대학에 재학 중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을 시작으로 하여,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나타난 본 논문에 가장 적합한 대표적 표상(이미지)에 부합되는 참여자를 추천받아 분석하였다. 총 12명의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하였고, 자료의 포화가 이루어진 8명이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이다.

〈표 4〉 전체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참여자	연령	성별	직업	최종 학력
A	56	여	강사	대졸
B	53	여	공무원	대졸
C	50	여	자영업	대재
D	52	남	사회복지사	대졸
E	54	여	간호사	대졸
F	55	남	구직 중(前 영업직)	고졸
G	52	여	주부	고졸
H	50	남	자영업	고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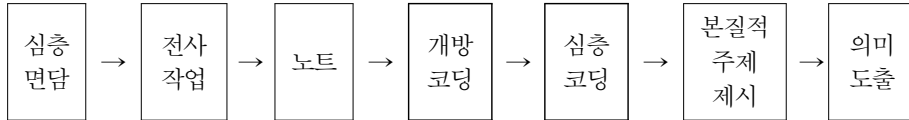
2. 자료 수집 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하여 자료가 포화 상태에 이른 2013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하에 녹음을 한 후 전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즉 연구자료에 대해 일련의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김영천, 2011). 이러한 특징에 대해 Miles and Huberman(1984)은 자료의 분석을 ‘자료 감소-자료 배열-결론 도출’의 3단계의 과정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아래의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첫째, 자료의 반복 읽기를 통해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연구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의미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을 응축하고 범주화하는 분석 과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범주화된 주제를 세분화하면서 분류·조직화하였다.

(그림 1) 자료 분석 과정



마지막으로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것의 의미를 도출,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 분석은 자료 수집과 분석이 분리된다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만큼 심층면담을 통한 연구자료 수집 과정과 분석 작업을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유추적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노력

본 연구는 연구자의 오랜 면접 경험에 의해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무리가 없었으며,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해 주었다. 면담 장소는 참여자의 선택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녹취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으며,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은 ‘괄호치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관련 사회서비스 전문가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질적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 측정(트라이앵글레이션, 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특히 덴진(Denzin)이 제시한 삼각 측정의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이론의 통합과 자료 통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Bogdan and Biklen (2003)이 제시한 분석 지침을 준수하여 연구 분석의 객관성과 엄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 24개의 개념과 6개의 하위 범주 및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에 대한 경험은 ‘사회인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직장인으로 버티었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호구지책 수단이 아닌 보람 있는 나의 일을 찾게

〈표 5〉 범주화 결과

개념	하위 범주	본질적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인 가족문화 - 취업에 대한 압박과 부담 -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일을 시작함 - 우연히 갖게 된 직업 	사회인의 세계로 들어감	일에 대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생계가 달림 -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은 일 - 돈을 벌기 위한 명함으로서의 직업 	직장인으로 버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짐 - 나를 지탱해 준 좋은 사람들 -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어 나옴 - 끝까지 버리지 않은 노력의 끈 - 분명한 선택과 마주함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나를 발견함 - 생계에서 보람으로 - 늦게 만난 첫사랑 같은 나의 꿈 - 나의 또 다른 자아 	호구지책 수단에서 보람 있는 나의 일로 변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적으로 살아온 우리들 - 돌봐 줄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음 - 가족이 우선인 세대 - 부양의 도리와 양육의 책임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낯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준비할 것이 남은 미래 - 의·식·주에 대한 복잡한 고민 -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 나의 일은 현재 진행형 	끝이 아닌 내 삶의 연속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당사자의 자기인식을 살펴보면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낯 세대'로 이해되고 있었다.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내 삶의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개념을 범주화한 결과는 앞의 <표 5>와 같다.

1. 일에 대한 경험

가. 사회인으로 들어감

참여자들은 유년 시절을 거쳐 사회인이 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보수적인 가족문화'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가족문화는 딸과 여성에 대한 희생을 묵인하는 것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딸이와 아들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버지도 사업 실패하고 고향분들에게 보증 썼다가 그렇게 되어서 (중략)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퇴를 세 번 했어요.” (참여자 A)

“장녀라는 무게감이 심리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똑바로 못하면 동생들한테 낮이 없는 거죠.” (참여자 G)

“아들들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3남 3녀에 막내딸이었는데 그쪽 동네가 상당히 보수적이었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이 컸고요.” (참여자 C)

“저도 집에서는 순종형의 딸이에요 큰 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저도 거역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동생들한테 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여자 E)

또한 참여자들의 유년 시절은 우리나라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서 근면과 성실의 가치가 무엇보다 강조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풍토는 '취업에 대한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나도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15, 16세가 아니라 열 살부터 일을 해요. 초등학교 3, 4학년이잖아 나도 시골학교 다닐 때만 해도 농번기에 학교가 며칠 쉬는 게 있었어요. 쉬는 날이 아니면 빠지는 애들도 꽤 있었지. 일을 해야 하니까. 초등학생인데.” (참여자 H)

“어릴 때부터 집안일 도와드리는 셈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지요.” (참여자 C)

“공부만 한다는 게 한가롭게 보였습니다. 고등학교쯤 배웠으면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다 싶고, 제 위와 아래들도 그랬고요.” (참여자 F)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게, 군대를 대학 졸업하고 왔으니 분명 집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 취업을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솔직히 먹고 자는 게 눈치 보이더라고요.” (참여자 D)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아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같이, 직업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일자리를 찾았다기보다는 이리저리 일할 곳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갖게 된 직업’을 통해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집안에서 다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무 업무를 보다가 우연찮게 ○○신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여자 C)

“제가 20대에 대학에 사회사업학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은 많았어요. 하지만 첫 직장은 ##일보 편집국이었어요. 첫 직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직장이 대부분 인텔리만 있고 고졸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중략) 부모님들 소원이 좋은 데 가서 진출하면 좋겠다였으니.” (참여자 A)

“전산이 좋아서 ###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고 보자고 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과를 일단은 들어가고 보자고 했던 거고.” (참여자 D)

나. 직장인으로 버텨

연구 참여자들에게 일은 ‘가족의 생계가 달린 것’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경제적 자립을 통한 생존의 중요성이 최우선 순위로 여겨지게 된 당시의 현실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엄마가 굉장히 몸이 약하셔서 심장 수술을 두 번 하셨죠. (중략) 그러다 보니 내가 넘어지면 온 가족이 도미노처럼 넘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직장에선 시집 안 가고 뭐하러 와서 일하느냐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요 말없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참여자 A)

“어쨌든 그때 일이 무엇이었던 나한테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었죠. (중략) 밥 먹고 살게 해주는.” (참여자 B)

“노가다에 도급에 하도급이 줄줄이 내려가면서 옷만 바뀌 입는데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못 뿌리치고 나오는 게 발목이 잡히는 게 ##에 있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처자식이 딸려 있지, (중략) 집사람과 자식이 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자 D)

참여자들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해 왔고, 이는 곧 ‘일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하는 공통적인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후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전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성실성을 잃지 않고자 애쓰는 모습과도 이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없이 놀아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집에 있지를 못했죠. 안 되면 무엇이랴도 배웠고,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했지요.” (참여자 D)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성실하라는 거죠. 일을 두고 어떻게 탄성을 부릴 수 있냐 싶어요. 저 역시 어려서 부지런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고, 커서도 지금까지도 하루도 일을 안 하거나 쉬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G)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명함’을 갖게 되는 의미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우리나라에서는 명함이 없으면, 어느 회사에 다니는 지, 없으면 어디 얼굴 들기 힘들어요. 직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좋은 직장, 대기업 타령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내가 가진 명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돈을 버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참여자 H)

“일을 하면서, 일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 보면 사람들이 직장이 없으면 보는 시각들이 아무래도 직장이 있는 사람을 괜찮게 보는 시각이 사

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다.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40대 중년으로 접어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는 그들의 삶에서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겪은 시기였다. 외환위기는 시장의 침체와 경제 불황을 동시에 야기하였다. 어떤 일을 해왔든 당시 대부분이 부도·실직과 같은 위기를 겪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그들이 20대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해왔던 직업으로서 ‘일’을 외부 요인에 의해 타의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95년 즈음 ○○이 무너지기 직전 문화센터를 새로 시작하면서 몇 억씩 투자할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저회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중략) 그런데 ○○의 1차 부도 소식을 광고 찍으러 인쇄소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로 들었어요. (중략) 4년을 끌다가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정말 많은 걸 잃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지요.” (참여자 C)

“처음으로 내 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약간 기분이 이상하긴 했죠. 모델하우스에서 바로 중도금까지 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준공 입주가 다가오니까 선납을 하면 좀 깎아주겠다고면서, 덜컥 내버렸죠. 10년 세월 넘게 모아 왔던 걸요.(중략) 옆친 데 댁친다고 부도난 회사 상대로 어떻게든 다시 지어 보겠다고 입주자 대책회의 어찌고도 다녀봤는데 IMF까지 터져버리니 다니던 직장까지 넘어가고, 정말 집도 절도 없어졌어요.” (참여자 F)

“하청으로, 하청으로 다니는데 IMF가 팍 터지더라고요. (중략) 결국 제가 1순위로 딱 걸린 겁니다. 그러니 '99년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정리로 들어가더라고요. 버티다가 나오게 되었지요.” (참여자 D)

난생 처음 겪게 된 경제위기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지만, 가족과 동료 그리고 지인들의 도움과 신뢰 그리고 격려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제도 등 미시에서 거시에 이르는 사회적 자본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원을 매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존 사회적 자본

의 경제적 효과를 논증한 연구 결과(박태정, 2010)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이는 참여자들이 ‘좋은 사람’으로 지칭하는 관계망에서 비롯된 보이지 않는 힘, 즉 사회적 자본이 그들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도움이 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남들은 상상도 못한 일을 겪었고 (중략)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는데 그러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략)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받았던, 채워지던 것들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인맥이었고 (중략) 그 덕분에 뺏속 깊이 힘들었던 순간도 그만큼까지는 못 느끼고 버티고 나온 것 같아요.” (참여자 C)

“힘 들 때면 좀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략)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 주고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참여자 E)

“(다닌던 직장을 그만둔 후) 다시 모 금융회사에 파트타임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동생 때문에 들어왔다고 오해도 받았지만 (중략) 내가 시간을 통해 보여주자 결심했지요. (중략) 그러다 보니 7명의 모임도 생겼고 그 안에는 그 회사 노조 회장까지 했던 분도 계셨어요. 저를 신뢰하여 이런저런 일도 더 맡어주고.” (참여자 A)

“실업급여 타 먹으면서 뭐가 있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고용지원센터인데 그때 고용안정센터라고 있었어요. (중략)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분이 웃으시더군요. (중략) 그분 덕에 적성검사란 걸, 그 곳에서 제가 나이 마흔 여섯에 처음으로 적성검사를 해봤더니 (중략) 복지 쪽으로 길을 들어서게 되었지요. 그 센터와 상담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상상이 안 됩니다.” (참여자 D)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변화의 소용돌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직과 도산 그리고 빈곤에 봉착했지만, 태생적인 성실함을 바탕으로 3D 업종에서부터 파트타임에 이르기까지 일에 대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는 위기를 벗어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문화센터 기능을 못하고 방과후로 전환을 해서 교사 5명이서 팀으로 진행했어요. 아이들 세계에서.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스케줄로, 수업

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참여자 C)

“도배일도 했어요. 한 7개월 정도. 그 일이 진짜 거칠어요. (중략) 2002년인가 풀통 들고 도배하러 다녔지요. 대기업 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전락했나 싶어 눈물도 나고. (중략)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일을 찾다가 ○○○맛 사탕이라고 아시지요.(중략) 한마디로 막장에서 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중략) 거기서 일한 다음에 옮긴 데가 그 ○○○생명 있지요, 보험설계사도 했어요. (중략) 실업급여도 끊어지니 저는 보험설계사하면 교육 때 월급이 나온다고 해서.” (참여자 D)

“늦게라도 학교를 다녔으니 졸업장 있겠다, 이제 늘 이력서를 들고 다닌 거예요. (중략) 그러다가 면접 보러 오라던 곳에서 야간경비 일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중략) 낮에는 다른 자격증 학원 다니면 되고 밤에는 지키면서 월급 받고 일하면 되니까. 됐다 싶더라고요.” (참여자 F)

한편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위기를 겪고 난 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일과 직업에 대해 직면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이는 일을 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중년 이후 삶에서 일의 목적을 둘러싼 고민과 분명한 선택과 마주하게 만든 동기로 작용하였다.

“아 다시는 실직, 정말 이런 일을 안해야겠다. 내가 이제 자기계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중략) 그러면서 시간을 쪼개자. 그리고 적성에 나왔던 복지랑 상담 관련 쪽으로 대학을 가자 결심했죠.” (참여자 D)

“나중에 안 거지만, 제가 엄마랑,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지나치게 밀착되었어요. (중략)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감정적으로 엄마를 핑계 삼아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지요. (중략) 단순히 직장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로 경력을 더 쌓고. (중략) 그래서 내후년에는 그 길로 (독립해서) 나갈 거라고 엄마한테 얘기도 했지요.” (참여자 A)

라. 호구지책 수단에서 보람 있는 나의 일로 변화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청년기를 거쳐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격동적인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전례 없었던 외환위기를 고스란히 경험한 이

들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타의에 따른 직업상의 위기를 맞았고 이를 극복해 가면서 잠재되어 있었던 자아 성장 및 계발 욕구를 뒤늦게 확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일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보람을 찾으려 하며 원래 품었던 자신의 꿈에 좀 더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내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이라기보다 과거에 비해 급여 혹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일을 찾아 하게 되고 그 일 속에서 자신들의 또 다른 자아를 찾게 되었다고도 강조하였다.

“소위 영업을 하던 일에 대해 내 단점을 발견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때 ○○○○이라는 곳은, 공고문을 보고선 ‘아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중략) 그리고 물론 생활도 해 줄 수 있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지요.” (참여자 B)

“시간이 가면서 정말 달라졌어요.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사회를 알아야지 되겠다는 욕심도 생기고, 저는 봉사도 안 해봤는데 심지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런 생각도 들고, 저한테 변화가 많았지요.” (참여자 G)

“인정을 받고 격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람이지요. (중략) 오히려 예전보다 출세욕 그런 거는 별로 없어졌어요. 그보다는 저에 대한 욕심이나 자기발전하는 걸 좀 더 보게 되죠. (중략)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 발전을 위한 것들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무튼 뭐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참여자 H)

“(예전에 비해 이 일이) 훨씬 낫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보람 있는 일이다 싶어요. (중략) 그냥 프로그램 짜 가지고 실적 보고하고 일 잘 돌아간다면 그게 보람 있는 일일까. 아니다 그거는 ○○○기업 안에서만 잘 돌아간다면 그만이지. 이거는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다. 이것처럼 변화되는 일이 어디 있냐 싶어요.” (참여자 D)

“내년엔 경력을 더 쌓아서 군부대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안가려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군인들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싶어요. (중략) 오늘도 눈 뜨면서 ‘나는 참 행복하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생각을 자주하죠.” (참여자 A)

2.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자기인식

가.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 낀 세대

연구 참여자들은 동년배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해 ‘전투적으로 살아온 우리’이자 ‘가족이 우선인 세대’로 표현하면서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의 도리와 자녀를 향한 양육의 책임을 깊이 느끼지만, 부모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의 자녀들로부터 부양 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생각들이 드러났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모와 자녀 세대의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이라고 이해하면서 양쪽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높았으며, 나아가 미래 후세대의 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저도 그렇지만 모두 전투적으로 살았잖아요. 저도 사고, 보증, 부도 다 겪으면서 가족들한테만큼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나를 돌보기보다는. 자기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고 저도 물론이고.” (참여자 C)

“제가 실업자 시절이 있긴 했어도 어쨌거나 밥을 굶기진 않았잖아요. 옷도 입혔고 공부도 시켰고. 근데 참 서운한 게 뭐냐면 애가 월급을 타오니까 노트북하고 지 할 일은 다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중략) 제가 화가 나서 너 한 달에 30만 원씩 내라고 하려다가 그 말이 나오다가도 쪽 들어간 게, 아 내 세대는 아니지. 손 벌리는 세대가 아니지. 손은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중략)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하는구나 싶어요.” (참여자 D)

“우리가 자식이 일곱이지만, 다 별로 넉넉하지 못해서 내가 우리 어머닐 많이 부양하는 편인데, 엄마를 어느 정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양도 질로 따지면 한이 없는 거지만 지금도 잘 부양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략)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아래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건 좀 다르죠.” (참여자 B)

3. 은퇴를 바라보는 관점

가. 끝이 아닌 내 삶의 연속

본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연구 참여자들의 은퇴란 끝이 아닌 삶의 연속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은퇴는 ‘아직 준비할 것이 남은 미래’이면서 ‘의·식·주에 대한 복잡한 고민’을 떠올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여겼다. 동시에 퇴직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일이란 언제나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현황, 은퇴 전·후 생활 수준 변화 등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은퇴를 둘러싼 통계적 의미를 제시한 것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이제 앞으로 고민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기술적으로 빨리 습득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지금 하는 일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음 어디든지 나를 부른다면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더 좋겠죠.” (참여자 A)

“저는 은퇴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해도 집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제 도움이 필요한 곳,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곳의 실태를 제가 이제 알고 봤잖아요. 진짜 돌봐줘야 하는 거고. 정말 은퇴는 하더라도 할 일은 많다,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분이 연금을 250만 원을 매월 받으면서도 경조사 모임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여태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심각성을 느껴요. 전 연금도 없잖아요. 현실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건데.” (참여자 C)

“노후보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은 들어놓고, 국민연금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 갖고 살 수 있을까, 가끔 생각은 하지요. 주택을 담보해서도 연금 준다던데 나중에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참여자 E)

“아직도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제 무엇이라도 배우고 싶고. 힘들더라도 저한테는 만족이니까 하고 싶은 일인데 이제 해야죠.” (참

여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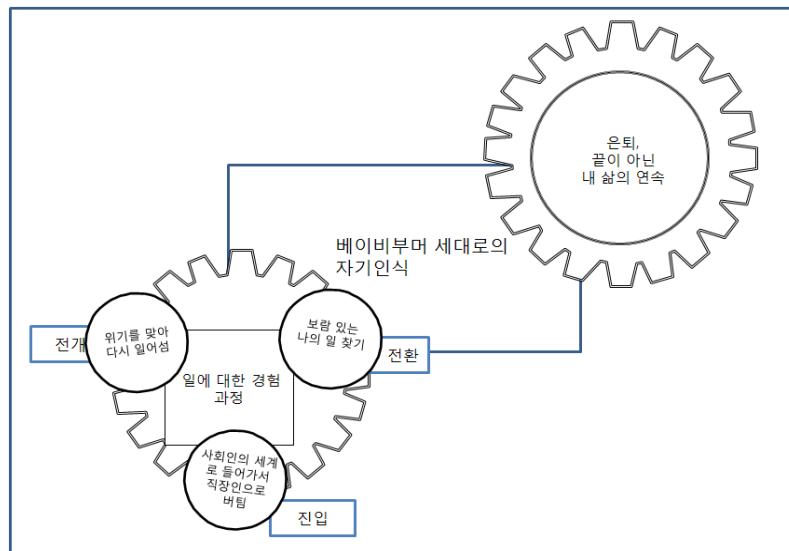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은퇴란 걸 한 후엔) 책도 읽고 공부도 더하고 싶고. 내 전공이 사회학이잖아요. 철학, 사회학 이런 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시간이 나면 앞으로는 그걸 해볼까 싶어요.” (참여자 B)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제도 각 방면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한 베이비부머 세대 당사자들의 생애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과 은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통찰을 갖고자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은퇴에 대한 경험적 의미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베이비부머 세대가 경험한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 구조



분석을 통해 제시된 본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에 대한 경험적 의미는 ‘진입, 전개, 전환’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진입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의 경험들은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출생했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다. 즉 그들의 출생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이지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과 빠른 산업화를 함께 경험한 세대들이다. 이는 해방 이전 청·장년기를 보냈던 베이비부머의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집단이 경험한 전근대적 사회경제 체제, 특히 농어업 중심 경제구조와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농·어업 중심의 가업을 물려받아 직업을 시작했다기보다, 산업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많은 직종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세대들에게서 ‘취업’이란 매우 생경한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부터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활동’ 내지 ‘취업’ 등과 같은 개념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가 일에 진입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는 선성장-후복지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기였다. 이는 곧 경제적 성공이 본인의 안녕과 사회발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으로도 바꿔 설명되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적성과 비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생략한 채, 외형적으로 ‘좋은 직장’을 빨리 구하여 자신과 가족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려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주된 배경 요인이 된다. 아울러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구직활동’을 통해 자리 잡은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보상도 어느 정도 이뤄졌던 시기이며, 적성 여부와 무관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그런 성실성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전개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주된 일의 경험은 1990년대 후반 즈음 그들에게 닥친 외환위기와 그의 극복 과정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당시의 경제위기는 베이비부머 세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근간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서로 다른 직업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환 단계에 이르러 그동안 해왔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경제활동의 단절을 경험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위기는 베이비부머

세대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정 일을 시작했던 진입 단계와는 달리, 스스로의 역량과 욕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의 전환 단계에 이르러 일의 경험들은 과거 진입 단계에서 인식했던 것과 구분되는 의미로 새롭게 드러난다. 즉 전술한 것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찾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숙고한 바에 따라, 일을 둘러싼 책임감과 의무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보람 있는 가치로서의 일을 찾아 해나가는 것에 주력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과정을 경험하면서 일의 의미와 그것을 보는 자신의 태도 역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주제로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자기인식을 살펴보면, 낡은 세대로서 가고 역할을 맡는 것과 더불어, 남아 있는 삶 역시 주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세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 인식과 책임감은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공유되는 것이며, 자녀 세대와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 주제로서 은퇴의 의미를 모든 일이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두드러졌다. 베이비부머 세대 당사자들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준고령자적 위치에 있는 만큼 그들은 스스로를 ‘노인’으로 동일시하지 않았으며, 직업에서의 은퇴가 사회경제적인 활동의 단절로 해석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즉 급여가 있는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위기’로서 은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은퇴 이후 원하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졌다. 즉 경제적 보상의 크기로 직업을 선택했던 일의 초기 단계와 달리,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이후 시기는 삶의 보람과 의미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중요시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를 경제적 측면의 위기로 간주하여 소득, 노동실태 등으로 접근했던 기존 관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요컨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살펴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파생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일을 둘러싼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치를 구세대와 이후 세대로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에 대한 경험의 경우, 한국전쟁 이전 세대와 현세대를 비교하여 세대별 일에 대한 경험 및 가치관의 변화 추이와 같은 연구로도 발전될 것이며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세대별 노동시장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구세대와 현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인적자본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과 연구들은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력이 시장 내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물리적인 은퇴 이후 원하는 일을 찾는 것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경제적 보상의 크기 여부가 아님은 분석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다. 그보다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자아실현 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조직 유형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좋은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이 컸다는 사실은 연구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갖는 특징과 효과에 주목하여 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상경(2012).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이후 세대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43(4): 91~119.

- 강은나·김혜진·김영선(2012).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근로 지속의사 및 근로 형태에 관한 연구」. 『보인복지연구』 55 : 159~182.
- 강정희·설연옥(2012). 「중년 독신여성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준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7 (2) : 127~151.
- 곽영순(2009). 『질적 연구 -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교육과학사.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천(2011).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아카데미플러스.
- 김준영(2011).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에의 시사점」. 『한일경상논집』 50 : 3~35.
- 김지훈·강욱모(2013).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갈등대처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1) : 51~69.
- 나일주·임찬영·박소화(2008).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비를 위한 정책방향: 국가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노인복지연구』 42 : 151~174.
- 박태정(2010). 「균형적 관점에서 본 사회자본의 재검토 및 개발방향」. 『사회보장연구』 26 (4) : 525~552.
-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 준·김지경·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2010).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의 과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석재은·이기주(2010).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별 유형화와 다층노후 소득보장 전략」.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회 및 복지재정 DB 학술대회 자료집』.
- 송양민(2010).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밥, 돈, 자유」. 21세기북스.
- 이지현·김선우(2012). 「한국의 베이비부머세대 중년여성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질적연구 - 서울 거주 중산층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4 (2) : 127~157.
- 이태진 외(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 및 담당자 심층면담 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찬호 · 진성미(2011). 「경력중기 남성 사무직 베이비부머의 경력개발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HRD연구』 13 (2) : 21~43.
- 정경희(2012). 「베이비부머의 가족생활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187 : 40~49.
- 정경희 · 오영희 · 이윤경 · 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Bogdan, R. C. and S. K. Biklen(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4th ed.). Pearson.
- Coleman, L. J., Hladikova, M., and M. Savelyeva(2006). “The Baby Boomer Market.” *Journal of Targeting,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Marketing* 14 (3) : 191~219.
- Coughlin and D'Ambrosio(2009). “Myths of Financial Planning and Baby Boomer Retirement.”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Marketing* 14 (1) : 83~91.
- Geertz, C.(1973). *Thick Description: Toward an Interpretive Theory of Culture*.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 Mayan, M. J.(2009). “Introduction to the essentials of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Conference.
- Meadows, P.(2003). “Retirement Age in the UK: a review of the literature.” *Employment Relations Research Series*. No.18, DTI.
- Miles, M. B. and A. M. Huberman(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SAGE.
- Tillesley, C., P. Taylor, J. Beausoleil, R. Wilson and A. Walker(2001).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Behavior.”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Research Report.

abstract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Exploring the Essential Meaning about Work and Retirement in Baby Boomer

Tae Jeo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specific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work and retirement among the baby boomer in Korea. With this purpose, I took main research question as follows : “what do they experience and how do they evaluate it?” Eight interviewe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I opera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and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are 3 categories : ‘The essential experience of work’, ‘Self-insight of baby boomer’, ‘perspective of retirement’. In conclusion, clear messages emerged from our research are that there are needs for down-to-earth subsidy provides adequate self-development opportunities to the baby boomer in desperate need. The government should take account of expanding labor market, such as social service and/or social enterprise related jobs. Also, they should consider them as major human resource, not simply as retired on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must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

Keywords : baby boomers, retirement, the quality of post retirement, life history research